

FUTURE MINDS

**PAL**  
SHOWCASE 2019

**PARADISE ART LAB**

**2019.10.18 FRI - 11.03 SUN**

**@STUDIO PARADISE, PARADISE CITY**

**@PARADISE ZIP**

KWON BYUNG JUN / KWON HA YOUN / KIM YUN CHUL / LOOPNTALE / MU:P  
YANGACHI / YULHYUL ARTS GROUP / LEE JANG WON / CLOYP / teamVOID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 파라다이스문화재단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술활동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하는 예술가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그들의 독창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장르를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 전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복합문화공간사업, 언버벌 비주얼쇼 콘텐츠 발굴 육성사업, 창·제작 지원사업 파라다이스 아트랩 등 매년 지원사업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물질의 지원을 넘어서 문화예술의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문화예술의 풍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PARADISE ART LAB

1

**Theme : 예술 + 기술 (Art & Technology)**

2

**작품 제작 지원 (Support for Art Projects)**

시각예술, 공연예술, 작품 제작 지원, 신작/재창작 작품 지원  
Visual and performing art projects support,  
Original and redesigned works support

3

**예술 영역 확장 (Expansion of Art 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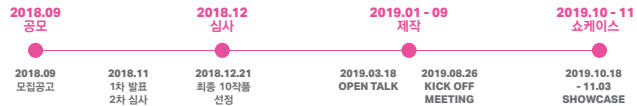
예술가 창작활동 기회 확대, 문화예술의 새로운 미래 제안  
Various creative initiative opportunities for artists,  
Proposing new future of cultural arts

4

**관객 향유 확대 (More Audience Enjoyment)**

관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영감 제공  
New experience and inspiration to patrons

## PROCESS



### · 사업운영 Business operation

최윤정 이사장 **Choi Yoon Jung** Chairwoman  
김영홍 사무국장 **Kim Young Jong** Corporate Bureau, Director  
김진희 문화사업팀장 **Kim Genie** Culture Business Team Manage  
신지나 기획PD **Shin Gina** Creative Producer  
최원정 기획PD **Choi Won Jung** Creative Producer

### · Advisory Board

양정웅 Advisor **Yang Jung Woong** Advisor  
유진상 Advisor **Yoo Jin Sang** Advisor

· 주최/주관



· 테크니컬



· 브랜드/ 운영



· AR 앱 기술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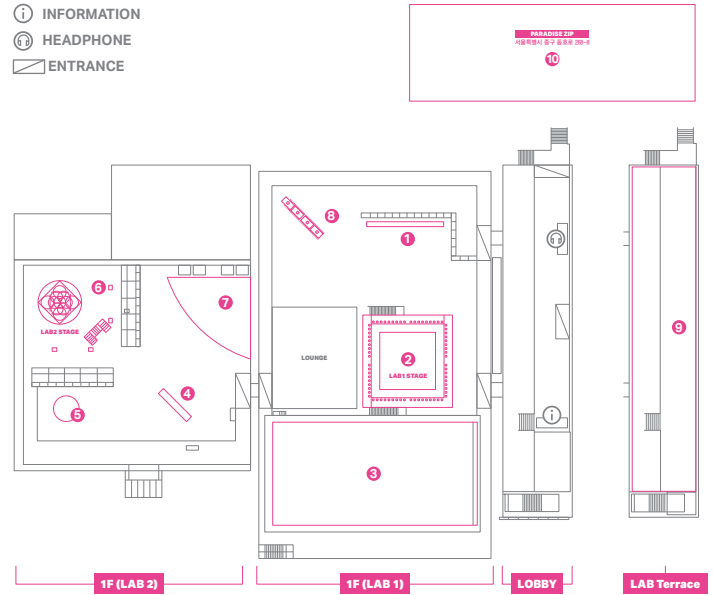


· 후원



**PAL**  
**SHOWCASE 2019**

- ① INFORMATION
- ② HEADPHONE
- ▢ ENTRANCE



**1 양아치 YANGACHI**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2 뭉 MU-P**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  
Decadence-System\_Aplat

**3 권하윤 KWON HA YOUN**  
Peach Garden

**4 룬엔테일 LOOPNTALE**  
히든 프로토콜  
Hidden Protocol

**5 김윤철 KIM YUN CHUL**  
Chroma II

**6 클로잉 CLOYP**  
팬옵티콘: 팬케이크에 관한 보고서  
Panoptikon: A Report on the Pancake

**7 이장원 LEE JANG WON**  
Oracle

**8 팀보이드 teamVOID**  
Wave Frames

**9 권병준 KWON BYUNG JUN**  
요묘한 진리의 숲 4 (다문화가정의 자장가)  
Forest of Subtle Truth 4 (Lullabies of Multicultural Family)

**10 열혈예술청년단 YULHYUL ARTS GROUP**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 FUTURE MINDS

파라다이스 아트랩은 예술과 기술을 융합하는 작업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기술 융합으로 더 큰 꿈을 꾸게 된 예술의 미래를 함께 하고픈 의지를 담았습니다. 2019 파라다이스 아트랩 쇼케이스는 선정, 제작 과정을 거친 10작품이 관객과 소통하는 순간을 포착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낯설게 느껴지는 기술들은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더욱 새로운 기술들이 일상에 녹아들 것입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는 약해질 것입니다. 그런 미래에서 우리는 예술이 삶과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워질 우리의 삶, 그것이 바로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FUTURE MINDS>입니다.

지금보다 편리한 삶을 살게 될 미래의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인간성이 사라지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게 될까요? 알고 싶은 미래의 마음 <FUTURE MINDS>입니다. 이제 파라다이스 아트랩의 10작품, 10아티스트와 대화를 나누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FUTURE MINDS>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Paradise Art Lab has set out to converge art and technology. The Art Lab presents our will to dream bigger in future art by the embedded convergence. 2019 Paradise Art Lab Showcase is designed to capture the moment of interaction between the audience and 10 selective works of art.

What will our future look like? We will get familiar with encountering unfamiliar present-day technologies and they will be part of our lives. The distinction between art and technology will be blurred. In light of our future, we expect to get closer to art. An anticipation for our enriched future through art is represented in the <FUTURE MINDS>.

As we enjoy the convenience of technology, what kind of mindset will we have? Will humanity be gone or will different communication methods appear? <FUTURE MINDS> provides answers to these questions.

Now, bask yourself in our 10 artworks and artists of Paradise Art Lab. And may you find your own <FUTURE MINDS>.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이사장 최윤정

Chairwoman of Paradise Cultural Foundation Choi Yoon Jung

## 01.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양아치 YANGACHI



### LAB 1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은 작가 양아치가 제안하는 개발자, 창작자, 기술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플랫폼이다.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써의 해당 작품은 다양한 참여자들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전시장에서, 공연장에서, 연구실에서, 워크샵에서, 세미나에서, 가능한 많은 장소에서 사용되길 기대한다.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은 양아치, 이정성이 참여하였는데, 특별한 점은 작가 양아치는 스코어 개념을 제안하며, 오브제 기반의 미디어 작업이라는 사실로부터 잠시 떠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백남준 작가의 엔지니어로서 활동한 이정성의 참여로 개념과 컨셉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도록 하였다.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은 오픈소스 플랫폼으로써 willy-nilly.org를 통해 관련한 정보와 활동을 공개할 것이다.

양아치는 새로운 미디어의 가능성을 넓히는 실험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작가는 미술을 전제로 음악, 무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연 및 전시를 선보인다. 양아치는 한국의 주요 미디어 아티스트로, 미디어의 시각적, 청각적 커뮤니케이션에서 공감각적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관심사를 넓혀가고 있다.

양아치는 수원 대학교 미술대학, 조소 전공으로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영상학, 미디어 아트 전공으로 졸업했다. 인사미술공간, 상상마당 갤러리, 아트센터 나비, 학교재 갤러리, 칠레 Galeria Metropolitana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리고 프랑스, 홍콩, 일본, 미국 및 칠레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0년 작가는 에르메스 미술상을 수상했다.

Thanks to 이정성  
www.yangachi.org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by artist Yangachi, is an open-source platform for developers, creators, and technicians. As an open-source platform, the work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in numerous ways by the audience. We hope this work can be applied in as many places as possible, from exhibitions and performance halls to laboratories, workshops, seminars, and more.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is a creation by Yangachi and Lee Jungsung. In particular, Yangachi proposes the concept of 'score,' allowing temporary escape from the fact that it is an object-based media work. Participation of Lee Jungsung, who worked as an engineer for the artist Nam June Paik, enabled this work to be an essential approach to the idea and concept.

As <Paik/Abe Video Synthesizer, Willy-Nilly Version> is an open-source platform, relevant information and activities will be published through willy-nilly.org.

Yangachi is known for his experimental works that probe broader possibilities of new media. Going beyond holding exhibitions, he collaborates with experts from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 dance and architecture to show performances and installation works. He is a leading media artist in Korea whose work spectrum continues to expand from visual communication of media to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audio and synesthetic communication.

Yangachi graduated from Suwon University College of Art & Design as a sculpture major then studied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with M.F.A. in Media Arts. He has held many private exhibitions in Seoul including Insa Art Space, Sangsang Madang, Art Center Nabi, Hakgojae Gallery, as well as Galeria Metropolitana in Chile. He has also participated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France, Hong Kong, Japan, U.S. and Chile. In 2010, the artist won the Hermes Art Award.

Thanks to Lee Jungsung  
www.yangachi.org

## 02.

###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 Decadence-System\_ Aplat

물 (조형준, 손민선) MU:P (CHO HYEONG JUN, SON MIN SUN)



#### LAB 1 STAGE

공연일정 | 10월 18일(금) - 20일(일), 16:00

공연시간 | 약 45분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다듬어지고 숨겨진 상태를 '데카당스(Decadence)'라고 재-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더하여, '시스템(System)'이 가지고 있는 '작동'의 의미를 단계에 걸쳐 구체화하고, 공간적으로 드러나는 수직적인 층위가 바닥으로 납작하게 겹쳐지는 것, 단색조의 평평한 상태를 은유하는 '아플라(Aplat)'를 발현 하는 것으로 전개된다.

패턴을 이용한 단순 반복적인 움직임을 통해 도취된 상태, 즉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지속되는 일정 자점에 도달 하는 것으로 안무 구성의 자동화(Autopoiesis)를 표방한다. 학습된 세 가지 패턴을 퍼포머 스스로 선택하고, 모방하거나 교차시키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를 통하여 동일한 위상에서 출발하는 서로 다른 갈래의 판(Scene)이 생성되고 변주된다.

<데카당스시스템\_아플라>는 데카당스의 중첩된 의미를 상징하는 두 가지 판을 구성하고, 이 둘을 연결하는 하나의 판(Portal)을 중심으로 앞과 뒤, 전과 후가 교차하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틀을 동시에 제시한다. 첫 번째 판은 규칙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반으로, 가상의 평면 위에서 절제되고 제한적인 퍼포머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이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확장되고 미끄러지는 두 번째 판에 의해서 깨어지고 왜곡된다.

이것은 극이나 이야기기 아니며, 시스템 그 자체이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항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교차하거나 어긋나는 지점에서부터 발생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찾는다. 신체와 사물을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는 각각의 객체로서,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 첫 번째 판이 데카당스일 수도, 두 번째 판이 데카당스일 수도 있다. 두 가지 판은 상호 보완적이며 서로의 데카당스가 되어준다.

안무가 조형준과 건축가 손민선의 협업을 바탕으로 결성된 '물'은 움직임, 공간과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탐색해왔다. 특정 장소의 맥락에 신체와 사물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간과 안무, 현상에 대한 실험을 시도한다. 연장선에서 유연한 다중 네트워크 속에서 일어나는 비선형적인 관계에 관심이 있으며, <열린 집합 Open set>을 주제로 물리적으로 국한되는 경계를 확장하는 매체 간의 교차점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코리아나 미술관 C-lab2.0 작가, 2017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시 상반기 프로젝트팀으로 활동하였다.

#### Credit

연출, 구성 | 조형준, 손민선      비주얼 | 서광은, 박성수  
사운드 | 김성환 (Feat. 청혜민)      출연진 | 강호정, 김서윤, 이선재, 하미라  
스타일링 | 안솔                      스태프 | 김준환, 유혜진

Instagram @\_mu\_p

Vimeo <http://vimeo.com/mupmup>

Performance Date | Friday, October 18 - Sunday, October 20, 16:00

Running Time | Approx. 45 min.

<Decadence-system\_aplat> begins by redefining the state of being refined and obscured by a regular pattern as 'Decadence.' The work is further developed by actualizing stage by stage the meaning of 'operation' inherent in the 'system,' and revealing 'Aplat,' metaphor for a monochromatic and level state where the spatially manifested, vertical layers collapse flat to the floor. The work demonstrates the automatization, or auto-poiesis of choreography by reaching the state of rapture, that is, the point where the system persists without any intentional decision, through simple, repetitive movements in patterns. Through the process of 'self-organization' in which the performer selects, emulates, or interplays among the three learned patterns, different offshoots of 'scenes,' beginning from the same place, are created and transformed.

<Decadence-system\_aplat> consists of two scenes which symbolize the multilayered meaning of Decadence; it presents a simultaneously temporal and spatial framework where front and back, and before and after intersect each other, around a single portal which connects the two scenes. In the first scene, restrained and controlled movements based on regular and geometric patterns are made by the performer on a virtual plane. They are then broken and distorted by the second scene which continuously expands itself and slides into other areas.

The work is neither a drama nor a story; it is a system in itself. It has no designated purpose or direction; it arises and finds new beginnings at points where objects intersect one another or get dislocated. Every component of the work, from human bodies to material objects, exists as a separate entity whose relation to one another is equal and horizontal. Whether Decadence applies to the first or the second scene depends on your viewpoint. The two scenes are complementary and counterparts to each other in terms of expressing Decadence.

Choreographer Cho Hyeongjun and architect Son Minusun have collaborated since 2013 as a collective [Mu:p] to structur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and movement. [Mu:p] experiments with space, choreography and phenomena that arise when human bodies are placed with material objects in the context of a specific site. They are also concerned with non-linear conjunctions in floating and multiple networks, working on the ways of expanding the boundaries of art forms. [Mu:p] was selected as a project team of C-lab 2.0 (Coreana Museum of Art, Korea, 2018) and Changdong Residenc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2017).

#### Credit

Direction and Choreography | Cho Hyeongjun, Son Minusun

Visual | Seo Gwangeun, Park Sungsu

Sound | Kim Sunghwan (feat. Jung Hyemin)

Performers | Kang Hojung, Kim Seoyoun, Lee Sunjae, Ha Mira

Styling | Ahn Sol

Staffs | Kim Junehwan, Ryu Hyejin

Instagram @\_mu\_p

Vimeo <http://vimeo.com/mupmup>



### 03. Peach Garden

권하윤 KWON HA YOUN

#### Credit

Directed by Kwon Hayoun

Production | Balthazar Auxietre / Richard Turco

Developer | Justine Delomenie

Lead Artist | Guillaume Bertinet

Animator | Samuel Arbouille

Sound Design | Norman Bambi

Supported by 104 Paris CENTQUATRE-PARIS. Produced by Innerspace VR.

www.hayounkwon.com

Lead Developer | Julien Le Corre

Level Designer | Fabrice Gaston

Technical Artist | Maxime Grange

Environment / Texture Artist | Axel Mounier



#### LAB 1

작품 평균 감상시간 | 5분 - 15분

4명 동시 감상 가능 / VR 헤드셋 착용

조선 초기 화가 안견의 '몽유도원도'에서 영감을 얻은 <Peach Garden>은 여러 명의 관객이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작품 속 세계를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아름답고 몽환적인 공간이다. 시각적 요소와 사운드가 서로 얽혀 관객은 시간이 정지된 듯 시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자유롭게 산책하며 놀라운 환경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원초적이고 동시에 시적이다. 천천히 내딛는 걸음을 통해 자아성찰을 가늠해 하고 그 순간 내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다.

권하윤은 한국과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멀티미디어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보자르 낭트에서 조형예술 및 시각예술을 공부하고, 프랑스 현대미술 스튜디오 르 프레누아 대학원을 졸업했다. 역사와 개인의 기억, 현실과 허구 사이의 양가적 관계에 질문하고 영토와 경계의 관계를 탐구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가상현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을 표현해왔다.

벨레 드 도쿄, 두산 갤러리, 아라리오 상하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했고, 부산 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메이악 현대아트센터 등 다수의 그룹전에 초대되었다. 2018년 Ars Electronica 특별상, 2017년 두산 연강예술포럼상, 2015년 팔레트 도쿄 신인작가상, 2014년 유리피어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 등 다수의 국제 무대에서 수상하였다.

Average Duration | 5 to 15 min.

Simultaneous participation up to four people available / Must wear VR headset.

Inspired by the famous painting 'Dream of Journey to the Peach Blossom Land' by the Korean painter An Gyeon (1350-1447)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Peach Garden> presents a beautiful and dreamy garden in a virtual space where the audience may walk around the world depicted by the great master with VR headsets. The work's visual elements and sound are integrated to create a poetic experience where time is suspended. Inside this dreamlike world, the audience may walk freely and even communicate with the spectacular surroundings.

Walking is inherent to our nature, and at the same time,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trospection. Peach Garden invites you to this reflective jour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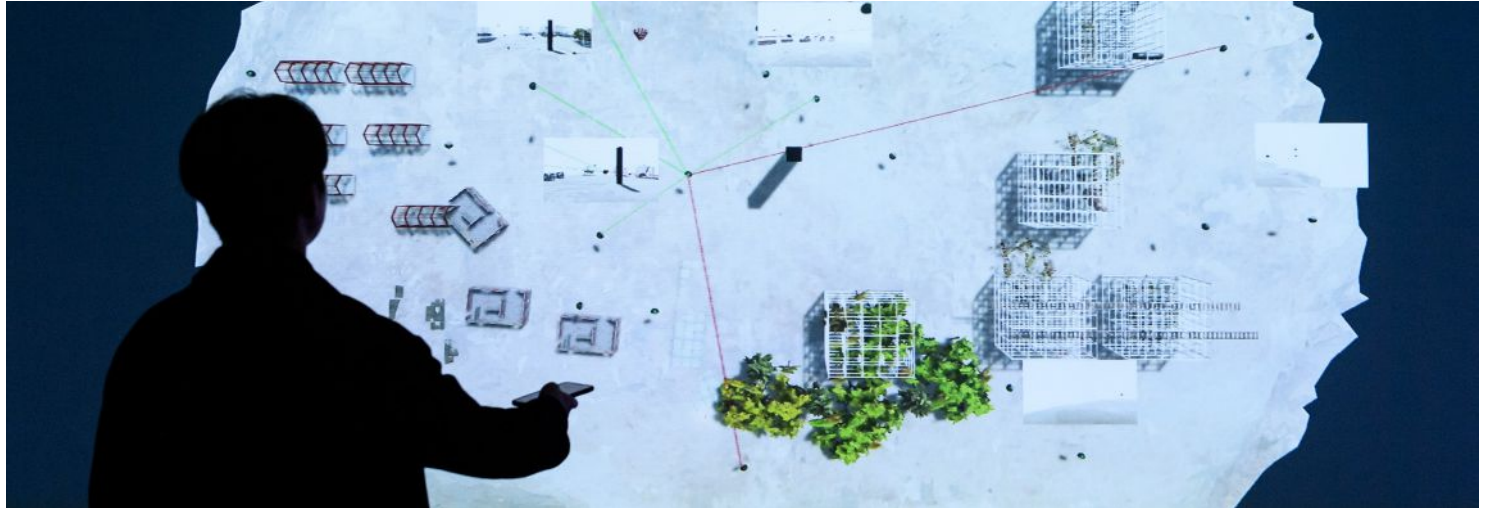
Kwon Hayoun is a multimedia artist and documentary director active in Korea and France.

She studied Fine Arts and Visual Arts in Nantes School of Fine Arts, and graduated from Le Fresnoy, National Studio for Contemporary Arts in France. Her works, ranging from VR productions to animations, focus on the construction of historical and individual memory and their ambivalent relationship to reality and fiction. Her solo exhibitions took place at Palais de Tokyo in Paris, Doosan Gallery in Seoul, and Arario Gallery in Shanghai. She has also been invited to multiple group exhibitions such as Busan Biennal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Korea, Nam June Paik Art Center, and Meymac Center for Contemporary Art in France. She won numerous international prizes and awards, including Prix Ars Electronica Award of Distinction in 2018, DOOSAN Artist Award in 2018, Prix Découverte des Amis du Palais de Tokyo in 2015, and Arte Creative Newcomer Award during the European Media Art Festival in 2014.

## 04.

### 히든 프로토콜 Hidden Protocol

loopntale(김영주, 조효연, 이강일) LOOPNTALE(KIM YOUNG JU, CHO HO YOUN, YI GANG IL)



#### LAB 2

<히든 프로토콜>은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주체가 되어 경험하는 세계와 교차하는 그들의 시선에 대한 인터랙티브 시뮬레이션이다. 인공지능의 개척자 중 하나인 마빈 민스키가 이야기했듯이 지능은 하나의 원리나 단일한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될 수 있다. <히든 프로토콜>의 세계에서 에이전트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은 머신러닝의 보상체계로 작동하고, 그들은 스스로 학습한다. 바라봄의 주체가 되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받고 그 반대의 경우 부정적인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에이전트들은 누군가를 바라보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목격되지 않으려 한다. 에이전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에이전트들로부터 도망치면서도 따라가는 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전부 예측할 수는 없다.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를 바라보는 시점은 작은 화면으로 분할되어 나타나는데, 생성되었다 사라지는 다양한 시점 화면들을 통해 세계는 다양한 각도로 모습을 드러낸다. 관객들은 개인적인 모바일 디바이스를 컨트롤러로 사용하여 에이전트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다. 에이전트들은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그들만의 관계를 구축해 간다.

loopntale (Loopntale)은 김영주, 조효연, 이강일로 구성된 아트게임 그룹이다. 게임 메카닉에 대한 실험을 기반으로 작품을 구현한다. 2018년부터 함께 게임 프로젝트, 전시 및 워크숍 등으로 활동해왔다.

[www.loopntale.com](http://www.loopntale.com)

<Hidden Protocol> is an interactive simulation of the world experienced by the AI as agents, depicting their intersecting viewpoints. As Marvin Minsky, one of the pione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gued, intelligence does not depend itself on a single principle or a mechanism, but may stem from the interactions among multiple actors. In the world of <Hidden Protocol>, interactions in which agents exchange viewpoints serve as a reward for machine learning, as the agents learn by themselves. When an agent spots other agents, it receives a positive reward; when it is spotted by others, it receives a negative reward. Consequently, the agents try to look at others while avoiding being looked at. The agents may show movements such as fleeing from or pursuing other agents according to their own judgment, but they cannot predict every result of the interactions which take place in real-time. The viewpoint of an agent looking at another is shown in a small, separate screen; through the many viewpoint-screens which appear and disappear, the world manifests itself in various perspectives. Audience may make changes to the agents' world using their personal mobile device as a controller, and experience the sound effect generated in the process. In the changing world, the agents build their own unique relationship.

Loopntale is an art game production group consisting of Kim Youngju, Cho Hoyoun, and Yi Gangil. Loopntale's works are based on their experiments on game mechanics. The team has collaborated on various game projects, exhibitions, and workshops since 2018.

[www.loopntale.com](http://www.loopntale.com)

## 05. Chroma II

김윤철 KIM YUN CHUL



### LAB 2

<ChromaII>는 200여 개의 패널로 구성된 키네틱 옵틱 설치 작품이다. 곡면 형태의 투명한 폴리머로 구성된 각 패널에는 키네틱 장치에 의해 힘이 가해지는데, 투명한 질료(Matter)의 물성에 가해지는 깊이와 압력(Stress)에 의한 폴 리머의 미세한 변형들이 복굴절(Birefringence)이라는 광학적 현상에 의해 다채로운 크로마틱 패턴을 생성하게 한다.

모르포라는 나비의 날개가 날개 표면의 독특한 미세구조 때문에 빛이 반사되고 간섭되면서 깊은 푸른 색으로 빛나는 원리처럼, 작품에서의 붉은 빛과 그 반대편의 푸른 빛 사이를 관통하는 수많은 색의 스펙트럼은 그 자체의 고유색이 아니라 물성의 구조(Structure)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색, 물질의 형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힘과의 관계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물질의 구조가 외부로 드러남으로써 관객들에게 생경하고 독특한 물질로부터 발현하는 색과 패턴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로써 색은 또다른 차원의 깊이를 갖고, 색은 하나의 조형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들의 출렁임이다. 작품은 15미터 길이의 튜브 구조가 마치 뱀의 꼬리가 꼬여져 여섯 개의 매듭으로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곡면구조의 셀들은 파라메트릭한 메시 구조로 고유의 조형적인 형태를 이룬다.

김윤철은 작가이자 전자 음악 작곡가로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은 유체역학의 예술적 잠재성과 메타 물질 (포토닉 크리스탈), 전자 유체 역학의 맥락에 집중되어 있으며, 작품은 ZKM (독일), Ars Electronica (오스트리아), 국제 뉴미디어아트 트리엔날레 (중국), VIDA 15.0 (스페인), Ernst Schering Foundation (독일), Transmediale (독일), New York Digital Salon (미국), Electrotype (스웨덴), Medialab Madrid (스페인) 등 국제적으로 보여져 왔다. 유럽입자물리연구소에서 수여하는 2016 콜라이드 국제상, VIDA 15.0의 Third prize 와 같은 국제상을 수상하였고, 예술·과학 프로젝트 그룹: Fluid Skies의 멤버이자 (2012-2014), 비엔나응용미술대학의 예술연구프로젝트: Liquid Things의 연구원 (2012-2015), 고등과학원 초학제연구프로그램 독립연구단 매터리얼리티(Matterality)의 연구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www.yunchulkim.net](http://www.yunchulkim.net)

**Instagram** @studio\_locus\_solus

**Vimeo** <http://vimeo.com/yunchulkim>

<ChromaII> is a kinetic optic installation consisting of over 200 panels. Force is exerted by a kinetic device on each panel made of curved, transparent polymer; the properties of the transparent matter and the different depths and pressure of the impact produces microscopic distortions, which in turn create a kaleidoscopic, chromatic pattern due to an optical phenomenon called birefringence.

Just as the wings of a morpho butterfly shines in deep blue because the unique microstructure of the wings' surface causes the light's reflection and interference, the spectrum of various colors, from red to blue, of the work is not the colors of the objects themselves but is created by the structure of the matter. structure, building a unique form.

Kim Yunchul is an artist and an electroacoustic music composer. His latest works focus on the artistic potential of fluid dynamics, metamaterials (photonic crystals) and especially on the context of magneto-hydrodynamics. His works have been shown internationally including: ZKM, Germany; Ars Electronica, Austria; International Triennial of New Media Art, China; VIDA15.0, Spain; Transmediale, Germany; ISEA, Germany; New York Digital Salon; Electrotype, Sweden; and Medialab Madrid, Spain amongst others. Kim was the winner of the Collide International Award 2016, CERN, and was awarded the third prize at VIDA 15.0, Vida Foundation in 2013. He is a member of the art and science project group Fluid Skies as well as Liquid Things, an artistic research project at the Art and Science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Applied Arts Vienna, Austria. He was also a chief researcher of the research group Matterality at the Transdisciplinary Research Program at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The structure of the matter, which was previously invisible, is revealed through colors, its form, and its relations with the external force, allowing the audience to experience unfamiliar and unique colors and patterns. The colors attain a new level of depth, manifesting themselves as a single composition through the ripples of constantly changing patterns.

The structure of the work is a 15-meter long tube whose inside and outside is connected with six knots, like a Mobius strip. To actualize this, the curved cells are put together in a parametric mesh structure, building a unique form.

[www.yunchulkim.net](http://www.yunchulkim.net)

**Instagram** @studio\_locus\_solus

**Vimeo** <http://vimeo.com/yunchulkim>

## 06.

### 팬옵티콘: 팬케이크에 관한 보고서 Panoptikon: A Report on the Pancake

클로잉 CLOYP



#### LAB 2 STAGE

공연일정 | 10월 18일(금) - 20일(일), 18:00

공연시간 | 약 45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권력의 역사는 규율사회라는 시스템으로 통제하면서 철저히 관리되어 왔다. 개인을 통제하고 활용하기 위해 규율을 강화하고 권력을 구현한다. <팬옵티콘: 팬케이크에 관한 보고서>는 거대한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 인간-기계가 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출구에 대한, 바깥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킨다.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은 가능한가? 우리 자신은 이미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권력의 안전망으로부터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낀다. 감시와 통제에서 의식적으로 깨어 현상을 직시하고, 자유와 인간으로의 회귀, 즉 인간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미디어 퍼포먼스로 구성하였으며 모션 캡처, 라이브 스트리밍, 프로젝트션 맵핑, 인터랙티브 인스톨레이션 등을 이용한 관객 참여형 공연이며 관객의 총체적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품이다.

클로잉(CLOYP)은 영상, 공연, 전시 등 융복합 프로덕션 제작에 재능을 가진 단체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창작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실험집단이다. 기존의 형식과 틀을 파괴하고 예술의 새로운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창조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작집단으로 다양한 실험작품으로 현실의 돌파구를 찾아내는 희망의 열쇠를 찾고자 한다.

Performance Date | Friday, October 18 - Sunday, October 20, 18:00

Running Time | Approx. 45 min.

The history of political power has created a system of control and management under the name of social discipline, affecting us who live in this era as well. In order to control and exploit the individual, this system expands its rules and exerts its power.

<Panoptikon: A Report on the Pancake> confronts the audience to witness humanity's miserable transformation into a tiny component of the gigantic system, evoking the thirst to seek the way out. Is it possible to be completely free from the society's control? But we are already a product of the power structure and feel protected and comfort within its safety net.

This is a story on the urgent need to stay awake against the surveillance and controlling regulations in our society an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recovering our freedom, our lost humanity. The media performance is designed so that the audience may engage themselves, and uses motion capture, live-streaming, projection mapping,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CLOYP is an experimental team which creates artistic contents, such as videos,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using various media. The group does not fear constant change and transformation, destroying existing forms and frameworks and seeking new art methodologies. CLOYP aims to find the key of hope which breaks through the reality through numerous experimental works.

#### Credit

기획 및 연출 | 오준현  
영상 | 박주혜  
연출 및 연기 | 김지영  
움직임 | 김소이

#### 프로덕션 스태프

대본, 드라마트루기 | 유희문  
조연출, 음향 | 정해정  
무대감독 | 강미진  
조명 | 여국근  
조명엔지니어 | 김수진, 홍해현  
음악 | 박동찬, 임이환  
무대, 인스톨레이션 | 오영택  
영상연출 & 촬영 | 송현석  
영상운영 | 장창원, 박소담  
인스톨레이션프로그래밍 | 김주영  
라이브스트리밍 | 임영선  
의상 | 이수왕  
메이크업 & 헤어 | 이승민  
기획팀 | 황보연, 김현수, 최유진,  
김민경, 박소영, 최주은  
그래픽디자인 | 박해정  
퍼포머 | 백유진, 현해선  
모션캡처, 퍼포머 | 김원준  
영상 & 기술팀 | 이예송, 김규리, 박강술, 이현우  
라이트패널 움직임 | 최수룡, 송하준, 김동재  
장비후원 | 서울예술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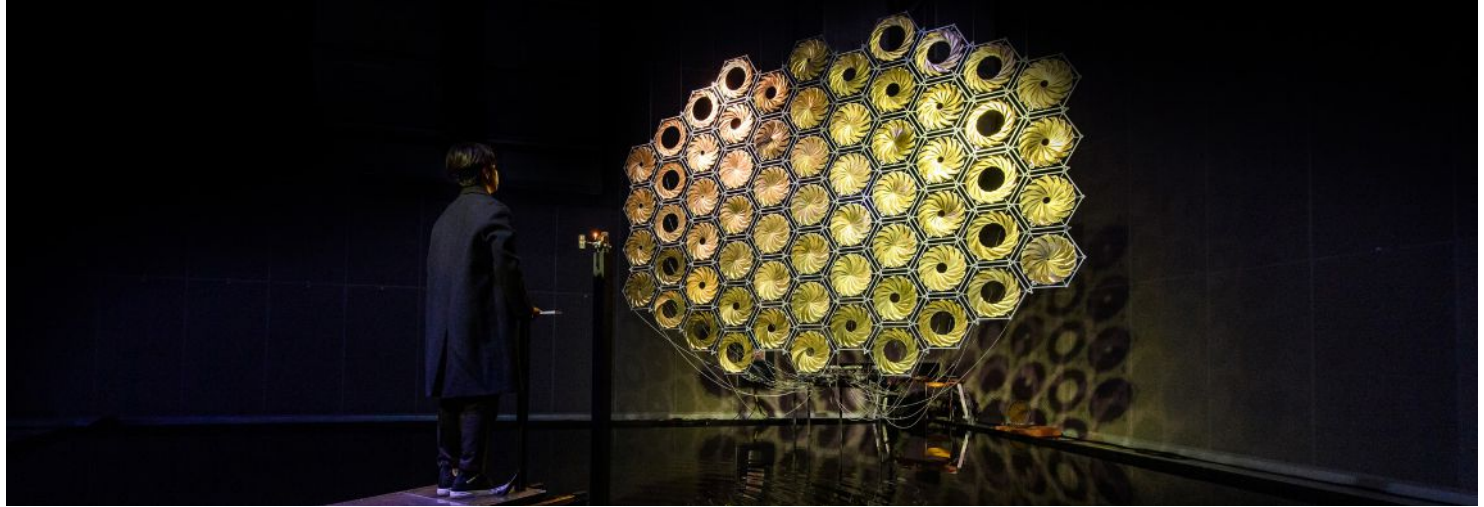
General Director | Oh Jun  
Media Arts Director | Park Joohye  
Performance Director | Kim Jiyoung  
Movement Director | Kim Soyi

#### Production Staffs

Screenplay, Dramaturgy | Ryu Heemoon  
Assistant Director, Sound | Jeong hyejeong  
Stage Director | Kang Mijin  
Lighting Director | Yeo Gukgun  
Lighting Engineer | Kim Subin, Hong Haehyeon  
Music | Park Dongchan, Yim Lisa Yiwihan  
Stage and Installation | Oh Yeongtaek  
Film Directing and Shooting |  
Song Hyeonseok  
Media Arts operation |  
Jang Changwon, Park Sodam  
Installation Programming | Kim Juyeong  
Livestreaming | Lim Yeongseon  
Costumes | Lee Suwang  
Makeup and Hairstyling | Lee Seungmin  
Planning Team | Hwang Boyeon,  
Kim Hyeonsu, Choi Youjin, Kim Mingyung,  
Park Soyeong, Choi Jueun  
Graphic Design | Park Hyejeong  
Performers | Back Yoojin, Hyun Heysun  
Motion Capture, Performer | Kim Wonjun  
Media Arts and Technical | Lee Yesong,  
Kim Gyuri, Park Kangsol, Lee Hyunwoo  
Light Panel Movement | Choi Sooryong,  
Song Hajoong, Kim Dongjae  
Equipment support | 서울예술대학교

## 07. Oracle

이장원 LEE JANG WON



Wilson+OS, Installation View @ Ars Electronica Center,  
Photo credit: Stefan Fuertbauer / Getty Images for Hyundai

### LAB 2

싱귤러리티(Singularity) 이후 인간과 자연의 정의는 기술에 의해 재정의 될 처지에 놓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여 특정한 형태로 수렴된 미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태양을 떠올린다. 따뜻하고 공평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태양은 오랜 시간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고 생명과 질서의 리듬을 조율하며 우리 기저에 존재해왔다. <Oracle>은 인격화된 기술로써의 태양을 연출한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기술적 존재들이 구분되기 어려워지는 혼돈의 시대, 새로운 질서와 에너지의 창출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할까? <Oracle>은 과학과 기술로 구체화된 인식의 범주를 은유와 상징을 경유하고 몸으로 체감함으로써 확장한다. 이러한 시도는 풍부한 오독의 가능성을 수용하는 알고리즘이며 <Oracle>이 또 다른 입력 변수를 생성하여 소비하는 과정이며 데이터를 유희하는 방식인 것이다.

서울대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이장원은 과학적 지식과 동시대 기술들을 통해 자연의 구조와 본질을 형이상학적 태도로 풀어내는 작가이다. 태양의 존재에 관한 사유와 그것이 창출한 리듬에 관한 작품들이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고양창작스튜디오, 헬싱키의 HIAP, 서울시립미술관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린츠의 아르스일렉트로니카에 참여하였으며,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예술과 과학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이런 그의 실천은 자연을 매개로 예술적 태도와 과학적 기술의 교류를 피력한다.

Once we reach Singularity, the definitions of humanity and nature will have to be revised by technology. If so, what would the future look like when the evolution of technology converges into a specific form? Imagine the sun. Sun - a warm, impartial object of trust - has always existed at the foundation of humanity, connecting humans with nature and fine-tuning the rhythm of life and order. <Oracle> is a representation of the sun as a personified technology. In a time of chaos where it be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humans, nature, and technological entities from one another, what can serve as the source of new order and energy? <Oracle> explores the categories of cognition specified by science and technology through metaphors and symbols and expands them through experiences of physical sensations. Such an attempt becomes an algorithm that embraces the rich possibilities of misinterpretation, a process of <Oracle> to generate and consume other input variables, and a form of playing with data.

Lee Jangwon graduated from the College of Fine Art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re he later earned his MFA. His goal is to provide metaphysical interpretations of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the nature, seen through the eyes of contemporary technology. His works which involve meditations on the existence of the sun and the rhythm it creates show best how he achieves this aim. He has sought to bring art and technology together through his involvement with the MMCA Residency Goyang, HIAP in Helsinki, SeMA Nanji Residency, Ars Electronica in Linz and as a researcher at KIST. His artistic activities are an expression of an alliance of the artistic soul with the scientific technology, with nature as their medium.

## 08. Wave Frames

팀보이드(송준봉, 배재혁, 석부영)

teamVOID(SONG JUN BONG, BAE JAE HYUCK, SEOK BOO YOUNG)



### LAB 1

<Wave Frames>는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변화를 시각화하는 키네틱-라이트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질서(Cosmos)와 혼돈(Chaos)을 반복하며 환경에 맞추어 변화한다. 이 작업에서는 겹겹이 설치되는 프레임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기하학적 형상의 조합을 통해 정돈과 혼잡을 연속적으로 보여준다. 각각의 프레임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모듈이며 그것들이 합쳐진 전체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이 누적된 하나의 시스템을 보여 준다. <Wave Frames>는 26개의 프레임이 겹쳐진 형태의 작업이다. 각각의 프레임은 동일한 동작 구조를 갖게 되는데, 모터에 의해서 프레임 내부에 있는 사각 형태가 회전하면서 변형된다. 각각의 프레임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모듈이 되며, 사각 형태의 움직임은 전후의 사각형태들과 간단한 규칙에 의해 정의되고 동작한다. 각각의 유닛이 만들어 내는 움직임은 매우 단순하지만 Stack이 되어 하나의 공간에 정렬되면 결과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유기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게 된다.

팀보이드(teamVOID)는 송준봉, 배재혁, 석부영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시스템적 관점에서 작업을 시도하는 미디어 아트 그룹이다. 공학과 미술 배경을 토대로 일반적인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것을 미학적으로 해석하여 인터랙티브 미디어, 키네틱 조형, 라이트 그리그 로봇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험적인 시스템을 구성하여 작품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www.teamvoid.net](http://www.teamvoid.net)

<Wave Frames> is a lumino-kinetic work which visualizes how a system changes as time passes. In general, a system transforms itself by adapting to the environment, and the relation of its components goes through the repeated cycle of cosmos and chaos. This work presents order and disorder sequentially through the aligned frames and the combination of geometric forms which move inside them. Each frame is defined as a unit module and the installation as a whole represents a single system in which time and space are accumulated.

<Wave Frames> is composed of 26 frames superimposed together. Every frame has the same mechanism of transforming the quadrangle form inside it with its four motors. Each frame is a unit module, and movements of the quadrangle form are determin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s. Although the motions created by each unit are simple, the patterns generated by the entire system, as the individual units form a stack in a single space, are complex and organic.

teamVOID is a media art group consisting of Song Junbong, Bae Jaehyuck and Seok Booyoung. The group creates artworks from a systematic perspective, exploring the theme of combination of art and technology. Through their works, they attempt to understand the properties of general systems, applying their diverse backgrounds in engineering and arts into aesthetic interpretations. Thus, they focus on designing experimental systems and express them through interactive media, kinetics, light sculptures and robot arm performances.

[www.teamvoid.net](http://www.teamvoid.net)

## 09.

### 오묘한 진리의 숲 4 (다문화가정의 자장가)

#### Forest of Subtle Truth 4 (Lullabies of Multicultural Family)

권병준 KWON BYUNG JUN



#### LAB Terrace

8명 동시 감상 가능, 헤드폰 착용

<오묘한 진리의 숲 4>는 소리의 섞임을 배제한 개인화된 듣기 형태인 헤드폰을 이용하고 위치인식 시스템 (LPS)을 이용한 장소 특정적 소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간과 조형물에 조응하는 소리를 경험하게 한다. 2017년 아르코 미술관에서 있었던 <혁명= TV로 방송되지 않는다>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오묘한 진리의 숲>은 '조용한 내 안의 혁명'이라는 가치를 22개의 서로 다른 장소 특정적 사운드로 전달하며 관객에게 선택과 집중의 자유를 제공함과 공간을 재해석 하는 소리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제주 예멘난민의 노래, 북한과 가까운 섬 교동도의 소리풍경 등으로 이어진 <오묘한 진리의 숲> 연작 중 네 번째인 이번 <오묘한 진리의 숲 4>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장가를 들려준다. 그들을 우리 사회에 포용하려는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순혈주의와 인종적 편견은 여전히 이주민들의 운전한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한국의 농촌 마을로 시집온 여인들은 고향의 노래로 아이를 재웠고 한국에서 커가는 아이들은 그 가락을 기억하던 댄 윙윙거리기 되어가고 있다. 충청남도 홍성에서 채록된 이번 다문화가정의 자장가는 그 기억 속의 울림을 되새긴다. 그들의 고향과 어머니의 노래, 삶의 이야기를 접하며 내 어머니와의 만남을 경험하고 언어의 낯설을 넘어 공명하는 교감의 숲에 온전히 흠뻑 앉아 있게 하고자 한다.

권병준은 1990년대 초반 싱어송라이터로 음악경력을 시작했고 얼터너티브 록에서부터 미니멀 하우스를 포괄하는 6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이후 2000년대부터는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국악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2005년부터 네덜란드에 거주하며 실험적인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 (STEIM)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2011년 귀국하여 현재까지 소리와 관련한 하드웨어 연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새로운 악기와 무대장치를 개발, 활용하여 음악, 연극, 미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 연출하고 있다. 앰비소닉 기술을 활용한 입체음향이 적용된 소리기록과 전시공간 안에서의 재현, 관련 기술 개발에 선두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퍼포먼스를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GF2)을 개발하고 있다.

#### Thanks to

이병영, 박영선, 새홍성 교회 이주민 센터(담당목사 유요열, 김선희), 홍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유초롱, 김유경, 김 갈리나), 문두성, 김규향, 양지윤, 이선민

#### Simultaneous participation up to eight available / Must wear headphones.

<Forest of Subtle Truth 4> uses headphones, which are personal listening tools that prevent external noises. The headphone provides a site-specific sound using a Location-Aware System (LPS), offering a unique experience where the sound matches with each space and sculpture. <The Forest of Subtle Truth> was premiered in 2017 at the exhibition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Sound Effects Seoul 2017> at ARKO Art Center. At the time, it conveyed the philosophy of a 'silent, internal revolution' with a personalized experience that provided the audience with complete freedom to make their own choice to concentrate and interpret the sound from twenty-two different spots.

The series of <The Forest of Subtle Truth> proceeds with the songs of Yemen refugees in Jeju Island and the sounds of Gyodong Island which is near North Korea. And <Forest of Subtle Truth 4>, which is the fourth edition of this series, presents lullabie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Despite many attempts to embrace them within our society, Korea's ethnocentrism and racial prejudices still make it difficult for immigrants to make themselves feel at home. Women from China, Philippines, Vietnam, Uzbekistan, and Kyrgyzstan, who became wives of men in rural villages in Korea, put their children to sleep with lullabies from their home countries. Their melodies will linger in the memories of the children, but will eventually fade away as time passes by. Lullabies in this series were recorded by multicultural families in Hongseong, Chungcheongnam-do. They echo the memory of someone far away in their homeland. By listening to the singer's song about their mother, homeland, and life, the audience will also be able to connect with their memories of his or her mother. The songs will invite you to sit in the forest of sympathy regardless of its language and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Kwon Byungjun started his musical career as a songwriter in the early 1990s. He released 6 albums of various genres from alternative rock to minimal house. Since the 2000s, he has displayed his musical talent in diverse artistic fields including film soundtracks, fashion shows, dances, play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He began living in the Netherlands in 2005, where he worked as a hardware engineer in STEIM, a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of experimental electronic musical instruments. He came back to Korea in 2011, and is working as a sonic hardware researcher who develops and applies new musical instruments and stage equipment to design and direct new media performances which combine elements music, drama, and art. He is a pioneer in sound recording which applies ambisonic technology, its reproduction in exhibition spaces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He is also developing the humanoid robot for performance, GF2.

#### Thanks to

Lee Bunyoung, Park Yongsun, Saehonhseong Church migrant center (senior pastor Yu Joel, Kim Sunhee), Hongseonggu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Yu Chorong, Kim Yukyung, Kim Galina), Mun Doosung, Kim Gyuhaeng, Yang Jiyoon, Lee Min.

## 10.

###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

####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열혈예술청년단 YULHYUL ARTS GROUP



**공연일정** | 10월 24일(목), 10월 25일(금) 19:30 / 10월 26일(토), 10월 27일(일) 17:30

**공연시간** | 약 2시간 30분

**관람연령** | 만 16세 이상

**Performance Date** | Thursday, October 24 and Friday, October 25, 19:30

Saturday, October 26 and Sunday, October 27, 17:30

**Running Time** | Approx. 2 hr. and 30 min.

**Minimum Viewing Age** | 17

#### 파라다이스 ZIP

우리는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다른 움직임을 추동하는 움직임' 이 이야기하는 파동과 궤적을 추적한다. 또한, 그러한 움직임을 매개하는 몸의 다양한 가능성을 '몸인 것에서 몸이 아닌 것까지' 추이로 바라본다.

이 두 관찰 작업이 파라다이스 ZIP의 공간성과 만나 춤의 형식으로 직조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은 움직임과 몸의 연쇄작용과 스펙트럼을 탐구하고 시각화하는 '춤의 전시이자 공연'이다.

열혈예술청년단은 실험과 도전으로써의 공연예술창작을 모토로 2000년에 창단, 무용과 연극을 기반으로 공간과 미디어에 관한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을 바탕으로 몸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다채로운 뉴미디어를 활용한 표현의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 Credit

**안무** | 유재미

**연출** | 윤서비

**댄서** | 허윤경, 노화연, 이선시, 김관지 외

**음악** | 이반석

**애니메이션** | 박형민

**미디어아트** | 유소영

**조명** | 윤해인 외

Blog.naver.com/yulhyularts

#### Paradise ZIP

In this work, we trace the waves and trajectories caused by movements that are started by another series of movements and drive yet another series of movements.

And we regard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human body which mediates such movements as a trend from what is a body to what is not a body.

Our goal is to blend the two aforementioned observations with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aradise ZIP and weave them in the form of dance.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is a performance and an exhibition of the dances which explore and visualize the chain reactions and spectra of the movement and the body.

Founded in 2000 to create performances which try new approaches and challenge the audience, Yulhyul Arts Group is a theatre and dance group which continues its experiments on space and media. Their recent projects involve raising new questions on the human body based on the postmodernist discourses, and seeking ways to expand their methods of expression through various new media.

#### Credit

**Choreography** | Ryu Jaemi

**Dancers** | Huh Yunkyoung, Noh Hwayoung, Lee Sunshi, Kim Kwanji, etc.

**Media Artist** | You Soyoung

**Director** | Yoon Subby

**Music Director** | Lee Banseok

**Animator** | Park Hyoungmin

**Lighting Designer** | Yoon Haein, etc.

Blog.naver.com/yulhyularts



## SPECIAL PROGRAM

### PAL TALK

오픈 포럼 프로그램

**일정** 10월 18일 (금) 14:00  
**장소** 스튜디오 파라다이스  
**비용** 무료  
**내용** **14:00 - 15:30 (90')** LAB TALK  
(작품 소개 - 권하윤 작가, 권병준 작가) @Lounge  
**16:00 - 16:45 (45')** 뭉 공연 @LAB1\_Stage  
**18:00 - 18:45 (45')** 클로잉 공연 @LAB2\_Stage

Open Forum Program

**Schedule** Friday, October 18, 14:00  
**Venue** Studio Paradise  
**Fee** Free of charge  
**Details** **14:00 - 15:30 (90')** LAB TALK  
(Work Introduction - KWON HA YOUN, KWON BYUNG JUN) @Lounge  
**16:00 - 16:45 (45')** [M:UP] Performance @LAB1\_Stage  
**18:00 - 18:45 (45')** [CLOYP] Performance @LAB2\_Stage

### PAL X LEO Program (for KIDS)

어린이 대상 아트&테크 체험 프로그램 (꼬마 유령 조명 만들기)

**일정** 10월 26일 (토) 16:00-17:00  
**대상** 7세-11세 어린이 (\*파라다이스호텔 이용 고객 대상)  
**장소** 파라다이스호텔 LEO 라운지  
**비용** 무료

Art and Technology Program for Children <Building Baby Ghost Lanterns>

**Schedule** Saturday, October 26, 16:00-17:00  
**Participants** Children from age 7 to 11 (\*Limited to Paradise Hotel&Resort guests)  
**Venue** LEO Lounge, Paradise Hotel&Resort  
**Fee** Free of charge

### PAL Lecture

랜덤 인터내셔널 그리고 김윤철 작가의 계원 렉처 프로그램

**일정** 10월 11일 (금) 14:00  
**장소** 계원예술대학교  
**대상** 계원예술대학생 및 일반 관객  
**비용** 무료

PAL Lecture (with Random International)

**Schedule** Friday, October 11, 14:00  
**Venue**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Participants** Kaywon University Students & Public  
**Fee** Free of charge

## DOCENT PROGRAM

평일 (Mon-Fri)	주말 (Sat-Sun)	KIDS(주말) (Sat-Sun)
13:00	13:00	14:30
15:00	15:00 (Eng.)	16:30
17:00	17:00	-
-	19:00	-

· 10/26(토)은 KIDS 도슨트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 이용 안내

- 평일 1일 3회운영 / 주말 1일 4회운영
- 현장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신청 후 체험 가능

### Docent Program Commentary Service

- Mon-Fri (3 times a day), Sat-Sun (4 times a day).
- We are offering a docent-guided tour, please apply at the information desk.

## 사전 예약 프로그램

PROGRAM	VENUE	TIME	CONTENTS	
PAL TALK	STUDIO PARADISE,  PARADISE CITY	10.18 FRI 14:00	렘북 LAB TAL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PAL 소개</li> <li>② 작품 소개 - 권하윤</li> <li>③ 작품 소개 - 권병준</li> </ul>
PERFORMANCE		10.18 FRI - 10.20 SUN 16:00	문 데카당시스템_아플라	MU:P Decadence-System_Aplat
		10.18 FRI - 10.20 SUN 18:00	클로잉 팬옵티콘 : 팬케이크에 대한 보고서	CLOYP Panoptikon : A Report on the Pancake
	PARADISE ZIP ·관람연령 : 만 16세 이상	10.24 THU - 10.25 FRI 19:30 10.26 SAT - 10.27 SUN 17:30	열혈예술청년단 움직임이 움직임을 움직이는 움직임	YULHYUL ARTS GROUP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That Move The Movements

## 셔틀 버스 안내

### 셔틀 버스 정류장

강남 : 역삼역 4번 출구 / 홍대 : 홍대입구역 3번 출구 / 인천 : 파라다이스시티역 맞은편

10.18 (금) ~ 10.20 (일)		
강남	홍대	인천
14:00	12:00	-
-	16:00	20:00

10.26 (토) ~ 10.27 (일)   11.02 (토) ~ 11.03 (일)		
강남	홍대	인천
12:00	-	-
-	16:00	20:00

· 출발 시간 기준입니다.



## 지하철 + 자기부상열차

- 파라다이스시티역 2번 출구로 나와서 잔디밭을 가로질러 입장
- 파라다이스시티 전용 연결 통로를 통하여 플라자까지 이동 후, 플라자에서 원더박스/씨메르/크로마 방면 입구 이용

## 지하철 + 버스

- 공랑철도 서울역 승차 (인천 국제공항 방면)
- 인천 국제공항역 하차 후, 인천국제공항정류장 방면 도보 이동
- 302, 306A, 306 승차 (용유 초등학교 방면)
- 하얏트호텔 정류장 하차
- 파라다이스시티 방향 도보 이동 (약 5분)

## 승용차

- 본 행사의 경우, 무료 입장으로 별도의 주차권 제공이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가급적 대중 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불 IC - 인천 국제공항공사 - IBC 지하차도 - IBC 월드게이트 오피스텔 방향 좌회전 - 파라다이스시티 도착

**2019.10.18 FRI**  
**- 11.03 SUN**

---

**Time | 10:00 - 20:00**

**Venue | STUDIO PARADISE, PARADISE CITY**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321길 186)

**PARADISE ZIP**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8-8)

**Free Admission | 무료입장**  
단, 일부 작품 및 공연은 사전 예약 필요

www.paradiseartlab.kr  
**instagram** @paradise\_cultural\_foundation

**Time | 10:00 - 20:00**

**Venue | STUDIO PARADISE, PARADISE CITY**

(186, Yeongjonghaeannam-ro 321beon-gil, Jung-gu, Incheon)

**PARADISE ZIP**

(268-8, Dongho-ro, Jung-gu, Seoul)

**Free Admission**  
· Some artworks and performances require reservation in advance.

www.paradiseartlab.kr  
**instagram** @paradise\_cultural\_foundation



**PARADISE**  
CULTURAL FOUNDATION